

佛教文化学会第23回学術大会

(第2回 大正大学—金剛大学校 国際学術研究発表会)

発表会テーマ『現代社会における仏教の諸問題』

地方寺院活動における菩薩思想について

鈴木 行 賢

(大正大学非常勤講師)

日本仏教は、全国に存在する寺院と、所属する僧侶（住職）によって維持運営されている。また各寺院は檀信徒と呼ばれる在家仏教者の布施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る。

しかし戦後60年を過ぎ、地方は過疎化が進み、人口が減り、地方によっては寺院自体が成り立たなくなりつつあるのが問題となってきた。

今回の発表では、地方における寺院活動について、ある地方寺院の実態を取り上げ、仏教者としての僧侶、仏教信者としての地域に注目し、その根底に流れる菩薩思想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い。

1、町おこしと寺院活動

今回取り上げる地方寺院は、福島県福島市にある五大院という天台宗寺院である。元々飯野町という人口6500人ほどの小さな町にあり、近年合併し福島市の一部となった。行政としての町の存在は、地域・経済の中心である。しかし合併はその中心を喪失することを意味する。

中心の喪失を防ぎ地域の形を保てるのは、寺院と神社だけである。なぜなら寺院や神社は、近代の行政よりも遙かに古くから地域に存在し、まさに地域の中心であり、生活の基本であったのである。

五大院は、古く奈良時代の末から昭和初期まで地域住民の生活に深く関わりを持ち存在していたが、近年の住職不在もあり、忘れられた存在であった。

このような背景の中、平成13年11月28日に、五大院縁日が復興という形

で開催された。

2、縁日という考え方

縁日は、不動明王の縁日である28日に毎月（年12回）行われている。
縁日とは、本来、仏との縁を深める日という意味である。

この五大院縁日では、「五大院縁日を開く会」のメンバーが、それぞれ担当部署を受け持っている。それはメンバーの得意な分野であり、受付・お茶の接待・案内・ポスター作りなど、仕事は多岐に渡るが、自然とそれぞれの性分に合った場所に収まってくるのである。

また手伝う人も、参拝する人も、それぞれ皆知り合いでもある。その日にお参りすれば、また逢える。人と人との縁を深めるのが、縁日なのである。

3、東日本大震災

平成23年3月11日（金）日本の根底を覆す大災害が起きた。東日本大震災である。福島県は、地震・津波・原発事故、そして風評被害のただ中にある。

五大院のある飯野町には、原発事故により全村避難となった飯舘村が避難してきた。村役場をはじめ、住民70世帯の仮設住宅・飯舘中学校や、企業などの仮設施設も町内に建設された。

五大院縁日を開く会のメンバーは、震災直後の3月28日の縁日を取りやめ、その代わりに避難した人々への炊き出しを自発的に行った。それ以降、縁日では飯舘村復興支援として、いくつかのイベントを開催してきた。

それらは、けして避難してきた人たちへの同情の気持ちという訳ではなく、また放射能汚染の中にいる同胞意識という訳でもない。

ただひたすら、「そうせねば、いられない」という気持ちが彼等を動かしたのである。

伝教大師最澄の言葉に、「己を忘れて他を利するは慈悲の極みなり」とある。また「東においては君子といい、西においては菩薩という」とある。彼等の行動は、まさしく菩薩の精神で行っているのである。

菩薩のあり方は、「自行化他」にある。自ら仏道修行を行いつつ、他方、衆生を化導する慈悲の実践にある。縁日に関わる人々のはたらきは、無意識ながらも菩薩行を行っているのである。

4、まとめ

以上、地方寺院における寺院活動「五大院縁日」を取り上げ、その諸相を通じて菩薩思想の実践の側面を見てきた。その活動は「町おこし」という活動ではあるが、その底流を観ていくと菩薩のあり方を実践していると言える。

天台教学では「無作」という考え方がある。それは仏事（仏道修行の実践）を意識せずに、しかもそれを自然に行う事である。修行という特別な形ではなく、人々の日常生活の中に、無意識のままに自然と菩薩のあり方を実践すること、これが縁日に関わる人々の中に、見えてくるのである。

지방사원(寺院)의 활동에서 나타난 보살사상에 대하여

스즈키 교우켄

(대정대학 비상근 강사)

일본의 불교는 전국에 존재하는 사원과, 사원에 소속된 승려(주지)에 의해 유지 및 운영된다. 또한 각 사원들은 단신도(檀信徒)라고 불리는 제가 불교자의 보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후 60 년이 지나면서 지방에서 과소화 현상이 진행되고 인구가 줄어들자 지역에 따라서는 점차 사원 자체의 운영이 힘들어지게 된 것이 문제화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방사원의 활동에 대하여, 특정 지방사원의 실태를 예로 들어 불교자로서의 승려, 불교신자로서의 지역에 주목하고, 그 근저를 흐르고 있는 보살사상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마을의 부흥과 사원의 활동

이번에 예로 들고자 하는 지방사원은, 후쿠시마 현 후쿠시마 시에 있는 오대원(五大院)이라는 천태종 사원이다. 원래 이노마치(飯野町)라는 인구 6500 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 속했으나 최근에 합병되어 후쿠시마 시의 일부가 되었다. 행정적인 의미에서 마을의 존재는 지역과 경제의 중심이다. 그러나 합병은 그 중심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을 상실하는 것을 막고 지역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사원과 신사뿐이다. 왜냐하면 사원이나 신사는 근대의 행정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지역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역의 중심이자 생활의 기본인 것이다.

오대원은 그 옛날, 나라(奈良)시대 말기부터 쇼와(昭和) 초기까지 지역주민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면서 존재해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주지승이 없었던 이유도 있어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1 년 11 월 28 일에 오대원의 엔니치(緣日)가 부흥이라는 형태로 개최되었다.

2. 엔니치(緣日)에 대한 생각

엔니치는, 매달 부동명왕의 엔니치인 28 일에 (연 12 회) 거행되고 있다.

엔니치란 본래 부처와의 연을 강고히 하는 날이라는 뜻이다.

이 오대원의 엔니치에서는 "오대원 엔니치를 개최하는 모임"의 멤버가 각각 담당부서를 맡고 있다. 그것은 멤버의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되는데, 접수 및 차 접대, 안내, 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자연스럽게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장소에 배치되게 된다.

또한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나 참배하는 사람 모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하다. 그 날에 사원을 참배하면 지인들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엔니치인 것이다.

3. 동일본대지진

2011 년 3 월 11 일(금), 일본의 근저를 뒤엎는 대 재해가 일어났다. 동일본대지진이다. 후쿠시마 현은 지진,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사고, 그리고 풍평(風評:소문)피해의 한가운데에 있다.

오대원이 있는 이노마치쵸에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모든 지역이 피난대상이 된 이타테무라에서 피난을 오게 되었다. 이타테무라 사무소를 비롯해 주민 70 세대의 임시주택, 이타테중학교, 그리고 기업 등의 가설건물이 이노마치쵸에 지어졌다.

오대원 엔니치를 개최하는 모임의 멤버들은 지진이 일어난 직후인 3 월 28 일로 예정되었던 엔니치를 취소하고 그 대신 피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식사를 제공했다. 그 이후 엔니치에는 이타테무라 복구지원으로서 몇몇 행사를 개최해왔다.

그것들은 결코 피난민들에 대한 동정이 아니었고, 또한 같은

방사능오염지역에 있다는 동포의식도 아니었다.

그저 "그것이 도리이다"라는 마음이 사람들을 움직인 것이다.

전교보살이었던 사이초(最澄)의 말 중에 "자기를 잊고 타인을 이롭게 함은 자비의 극치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동쪽에서는 군자라 하고 서쪽에서는 보살이라 한다"라는 말도 있다. 그들의 행동은 바로 보살정신의 실천인 것이다.

보살의 본연의 자세는 자행화타(自行化他)에 있다. 스스로가 불도수행을 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을 화도하는 자비를 실천한다. 엔니치에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리

이상으로 지방사원에서 실천한 "오대원 엔니치"의 활동을 예로 들어, 그 여러 모습을 통해 보살사상의 실천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 활동은 "마을의 부흥"을 내걸고 있지만 그 저류를 잘 살펴보면 보살의 본연의 자세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태교학에서는 "무작(無作)"이라는 사고방식이 있다. 이는 불사(불도수행의 실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다. 수행이라는 특별한 형태로서가 아니라, 각자의 일상 생활 속에 무의식적으로 자연히 보살의 본연의 자세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엔니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난다.